

칸첸중가 도전으로 8,000m급 14좌 반환점 도는 김 홍 빈 대장

“한봉우리 한봉우리... 정상에서 희망 전할 것”

“한 봉우리, 한 봉우리 오르는 것이 숙제입니다. 등정할 때마다 해야 할 숙제를 하나씩 풀고 온다고 생각합니다. 죽기 살기로 아니라고 재미있게 한번 놀고 오겠습니다.”

8000m 14좌 완등에 도전하는 열 손가락이 없는 고산 등반가 김홍빈(49·예술스포츠 홍보이사) 대장이 목표의 반환점을 돌았다. 김 대장은 지난해 7월 K2에 오르지 8개월 만에 다시 8번째 목표인 세계 3위 봉인 칸첸중가(8586m) 정상을 향해 장도에 오른다.

정원박람회 성공기원... 16일 순천서 발대식 선발대 22일 출국 예정... 4월말쯤 정상 공격

◇8번째 8000m급 등정나서는 '2013 한국 칸첸중가 원정대'는 이흥우(순천시 체육회 상임 부회장) 단장·박상수(광주·전남 학생산악연맹 명예회장) 부단장·이병철(보성 예당고 교사) 부단장, 이성원(남강산악 대표) 원정대장·김홍빈 부대장, 박남수(하말라야 무등산점 대표) 등반대장, 박현수(광주·전남 등산학교 강사)·박상훈() 대원 등으로 구성됐다.

원정대는 오는 16일 순천만 정원박람회장에서 발대식을 갖고, 선발대는 22일, 본대는 사흘 후인 25일에 출국할 예정이다.

이번 원정대는 오는 4월 '지구의 정원 순천만(Garden of the Earth)'을 주제로 열리는 2013 순천만 정원박람회의 성공을 기원하는 순천시민들의 응원을 받으며 칸첸중가 등정에 나선다.

원정대는 5400m에 베이스 캠프를 설치한 후 남서쪽 등반루트를 따라 세미알파인 스타일로 등정에 나선다. 정상공격은 4월 말~5월 초로 예상하고 있다.

김 대장은 28세 때인 지난 1991년 북미 최고봉인 매킨리 단독 등반에 나섰으나 경험부족으로 인해 고소증세, 탈진, 피로가 겹치는 바람에 의식을 잃어 후송도중 심한 동상에 걸려 부득이 열 손가락을 잘라야 했다.

김 대장은 사고 이후 혼자서 양말을 신을 수도 없었지만 불굴의 의지로 '산에서 얻은 장애를 산을 통해 극복하며' 다시 산에 오르기로 했다.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전파하는 '희망 메신저' 역할을 하는 김 대장은 이번 캠페인에 장애인 이만나고 싶

어하는 장애인 1위로 꼽혔으며, 지난해 12월에는 끊임없는 도전정신을 인정받아 엄홍길 휴먼재단이 수여하는 '도전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김 대장은 1997년 유럽 엘브루즈(5642m)와 아프리카 킬리만자로(5895m), 1998년 남아메리카 아콩카과(6959m) 2007년 아시아 에베레스트(8848m)와 호주 코지어스 코(2228m), 2009년 남극 빈슨매시프(4897m)까지 12년에 걸쳐 7개 대륙 최고봉을 올랐다.

◇서두르지 않고 완등 도전할 터 이어 김 대장은 8000m급 14좌로 눈을 돌렸다. '14좌 완등'은 남가과르박 원정대원으로 선발됐을 당시부터 마음속에 품었던 김 대장의 오랜 꿈이었다. 현재까지 에베레스트, K2, 가셔브를 2봉, 시시방마, 마칼루, 다울라기리, 초오유 등 총 7개 봉을 등정했다.

김 대장은 “불가능”이란 말은 ‘가능하다’는 말이다. 항상 등반할 때마다 조금 늦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자고 되새긴다”며 “8000m급 14좌 가운데 절반을 등정했다. 앞으로 서두르지 않고 (완등에) 도전할 생각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홍빈 대장은 최근 열린 '제10회 장애인 동계체전'에 출전해 2년 연속 대회 3관왕(스키 알파인 회전·슈퍼컴바인드·슈퍼대회전)에 올라 화제가 됐다. 스틱을 사용하지 않고 슬로프를 활강하는 것이 특징이다. 김 대장은 8000m급 고산등반에 필요한 체력을 키우기 위해 동계에는 알파인 스키, 하계에는 사이클을 병행하고 있다.

/글·사진=송기동기자 song@



고산 등반가 김홍빈 대장이 8번째 8000m급 등정에 도전한다. 8586m 높이의 칸첸중가는 세계 3위의 고봉이다.



■칸첸중가(Kanchenjunga·8586m)

네팔과 부탄(시킴)의 경계에 솟아 있으며, 지구상에서 세 번째로 높은 산이다. 8000m급 14좌 산중에서 가장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8450m가 넘는 4개의 봉우리를 포함해 5개의 봉우리가 있다. 칸첸중가는 티베트어로 '큰 눈(雪)으로 이뤄진 다섯 개의 보고(寶庫)'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최초의 등반시도는 19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첫 등정에 성공한 것은 1955년 5월 영국원정대이다. 1987년 1월 이정철씨가 한국 동계 초등의 기록을 남겼다.

‘리틀 사이’ 황민우 가수 데뷔

“춤 노래연습하는 게 힘들다구요? 제가 좋아하는 일이라 즐겁게 연습하고 있어요. 사이 삼촌보다 더 큰 가수가 되고 싶어요.”

광주 출신의 ‘리틀 사이’ 황민우(9)군은 앨범 발매를 앞두고 매일 밤에 흠뻑 땀을 흘리며 춤과 노래를 연습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군의 소속사인 스타존엔터테인먼트는 “민우군이 13일 첫 번째 싱글 앨범인 ‘쇼+타임’(Show+Time)을 디지털 싱글로 발표한

를 기억했다. 이날 축하 무대에 올랐던 가수 사이와는 동선이 엇갈려서 만나지는 못했지만 황군도 사이 못지않은 ‘월드스타’로 세계를 누비고 있다. 이미 미국·베트남·중국·필리핀·대만·말레이시아·싱가포르에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광주 광산구 어등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 ‘광주의 춤 신동’으로 잘 알려진 황군은 ‘사이의’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에 출연해 ‘리틀 사이



“사이 삼촌보다 더 큰 가수가 되고 싶어요” 광주 출신... 디지털 앨범 ‘쇼+타임’ 발표

다”며 “이에 앞서 오는 7일 뮤직비디오 티저 영상을 공개한다”고 6일 강남구 논현동 헤라초콜렛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쇼+타임’은 ‘사이의’ ‘강남스타일’처럼 랩이 가미된 일렉트로닉 사운드의 댄스곡이다. 이 곡에서 황군은 춤과 함께 랩을 선보일 예정이다. 황군이 출연한 뮤직비디오 촬영도 최근 마무리 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 제 18대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에 국민대표 30인 중 한 명으로 단상에 올랐던 황군은 “박근혜 대통령님이 저를 알아봐 주셨다”며 “머리 모양도 그렇고 사이와 많이 닮았다”고 했다고 당시

이로 불리며 화제가 됐다. 앞서 SBS TV ‘스타킹’과 tvN ‘코리아가 탤런트 2’, KBS 1TV ‘전국노래자랑’ 등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

한국인 아버지와 베트남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다문화 가정 자녀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한국과 베트남 합작영화 ‘사이공 신데렐라’에서 한국의 아이돌 스타로 깜짝 출연하기도 했다. 베트남 출신의 어머니 부터리(31)씨는 어릴 적부터 아들이 남달랐다고 말했다. “민우는 태어난 지 2년도 되지 않아 음악에 몸을 맡겼어요. 3살 때는 TV에 마이클 잭슨이 나왔는데 금방 그 춤을 따라하는 걸 보며 타고난 끼를 발견했죠.” 아버지 황

의창(53)씨는 늦둥이 아들이 춤과 노래에 소질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아들의 재능을 적극적으로 키워줄 생각이다. 지난해 8월에는 서울에서 열린 사이 콘서트에도 부부가 아들과 함께 다녀왔다.

황군의 아버지는 “민우가 어린 나이에 가수와 배우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 안쓰럽기도 하지만 스스로가 즐거워서 열심히 하기 때문에 끝까지 응원해줄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우가 컴퓨터를 보면서 춤과 노래를 연습하는 모습을 보면 아들의 목표처럼 세계적인 가수 사이, 그 보다 더 큰 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암투병’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 사망

남미좌파 반미장성 14년 집권 마감... 내달 대통령 선거

암 투병 중이던 우고 차베스(58)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5일 오후 4시 25분(이하 현지시간) 끝내 별세했다고 니콜라스 마두로 부통령이 발표했다.

14년 장기집권한 차베스 대통령은 최근 2년 동안 암 치료를 받아 왔으며, 최근 들어 새로운 감염 증세로 호흡 기능이 급격히 악화됐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7일간의 애도 기간을 선포했다. 장례식은 오는 8일 치러진다.

1954년 7월 28일 베네수엘라 남부 농촌 마을 사바네타에서 태어난 차베스는 소년 시절 미국 메이저리그 진출을 꿈꾸던 야구선수였다.

17세 때부터 군인의 길을 걷기 시작

한 차베스는 1992년 휘하 병력을 이끌고 쿠데타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1994년 사면된 차베스는 1998년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고 이듬해 44세의 나이로 베네수엘라 최연소 대통령의 자리에 올랐다.

헌법 개정을 통해 2000년 재선된 차베스는 2002년 쿠데타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가 살아남은 뒤 한층 더 강력한 권력을 휘둘렀다.

차베스가 당시 미국을 쿠데타 배후로 지목한 것을 계기로 그와 미국과의 대립 구도도 형성됐다.

이후 석유산업을 국유화하고 국제유가 상승에 힘입어 넉넉해진 재정을 바탕으로 그는 대중영화주의(포퓰리



즘) 정책을 밀어붙였다. 차베스에 대한 평가는 외교 측면에서 ‘자주’와 ‘고립’으로 엇갈리고, 내정에서는 ‘빈민 구제자’와 ‘독재자’로 양분된다. 베네수엘라 헌법에 따라 앞으로 30일 이내에 대통령선거가 실시된다. /연합뉴스

봄맞이 무료특강

부동산 전망과 재테크 성공전략

정부가 변화하면 투자전략도 변해야 한다.
혼란기시대에 부동산 투자에 정곡을 찌르는 알찬강의!
2013년 급변하는 환경속에서 효과적인 투자전략을 찾을 수 있는 특별강좌를 개최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2013년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재테크 전략

강사: 정 명 수 경영학박사(부동산마케팅 전공)
-한국부동산정보연구소장, (사)대한부동산학회 광주·전남지부장
-전남대 경영연구소 책임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KPC) 위촉교수, 공무원연수원 등 초청강의

2. 혼란기시대의 부동산 수익형 토지 성공전략

강사: 김 명 표 토지재테크 전문강사
-전 현대그룹 팀장
-강남 랜스튜디오 재테크 전문강사
-전남대, 기업체 등 출강

일시: 2013년 3월 8일(금) 주간 14시 / 야간 19시
좌석 및 당일 혼잡관계로 사전전화 예약반(선착순 70명 마감)
장소: 광주롯데백화점 문화센터 강연장(광주은행본점5층)
주최는 롯데백화점
후원: 참가자 다와옥션 경매이용권(3만원) 무료제공

광주 롯데백화점 (062) 221-1810~2 문화센터
HP: 010-5613-1808

50년 전통 대를 잇는 한의원

북경당 한의원

알레르기성 비염

축농증 · 코피 해결

비만클리닉

한의학박사 박상준 원장
동신대학교 외과교수 역임

KT, 중앙초교, 금남로, 구.한미소방, 구.한미소방, 현재주소, 바로 옆으로 이전, 통부소방서

진료문의 062)227-7575

진/료/시간
평 일: 오전9시~오후7시
토요일: 오전9시~오후4시
일요일휴진, 공휴일은 안건료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상여법 제00130-규-269호

운명철학

人間的 길흉화복이라는 것이 과연 선천적으로 타고나는것일까? 또는 운명적 점지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후천적 노력과 기회로 강호의 영웅호걸이 탄생되고, 21세기 현대문명사회에서도 죽한기 제대로 못먹고, 신용하는 노후 인생과 빈명들은 정녕 노력을안해서였을까?

여기서 엄청난 사실을 발견할수 있다!
자신의 분수(운명)를 모르고, 분마처럼 날뛰면서 청춘과 일생을 허생 낭사한 결과는 어떠한? 두번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인생의 흐름에서 참으로 선천과 운명적으로 부여받은 스스로의 복덕과 관운 재운 부부 지식 학운 건강등이 자신의 속명관에 어떻게 배열되 있는지 참고점점 해보는 것이 지혜있는 삶의 방법입니다.

※단 맞지 않으면 무조건 무료
중국, 대만, 대한민국 저미두수 대가!

광천동지함 비출(천문 저미두수) 수선법을 요절한 경지에서 인생길을 통해 하게 안내할, 역술과 풍수지리 참선의 길 기호두수 무료강의 무료 개인지도 자격제한 없음(무속인, 역술인 환영)

감정강의장소 전남 담양군 남면 지곡리 95-2 (광주대 상류 소재원 주차장 아래 하천변) 철학연수원(진짜곰탕집)

TEL 061-383-7222 HP 010-4178-8830
강사 柳無山居士

무등빌딩임대

무등산이 보이는 최상의 조망권,
지하철 역세권에 위치한 편리한 교통권,
금융지역, 상업지역이 함께 어울어져있는
업무의 편의성,
신형 주차시설 완비·중앙 공급식
냉·난방시설,
쾌적한 업무
환경

·면적: 330평 / 층 (분할임대 가능)
·용도: 사무실, 판매시설

임대문의 062-222-0527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